

작품 내용

제 목	낭만이 사라진 거리
내 용	5학년 겨울, 신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동성로 거리로 나갔다.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거리엔 반짝이는 전구가 켜지고, 많은 가게에서는 흥겨운 캐럴이 흘러나온다. 두툼한 외투를 입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설레는 미소가 가득하다. 거리의 예쁜 장식과 반짝이는 트리. 그런데 왠지 허전한 마음이 들었다.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무언가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 크리스마스 캐럴!” 크리스마스 캐럴이 빠진 것이다. 캐럴을 따라 부르며 거리를 걸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 가족과 함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들어갔지만, 그곳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서도 허전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크리스마스에는 당연히 캐럴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음악이 들리지 않으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아빠, 요즘 길거리나 가게에서 왜 캐럴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아빠께서는 아마도 ‘저작권’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작곡가나 작사가가 만든 음악을 많은 사람에게 들려줄 때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켜야 하며, 경우에 따라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질차가 복잡해서 가게 분위기를 좌우하는 음악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저작권 때문에 낭만이 사라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하지 못한다니, 아쉬운 마음에 괜히 투정을 부렸다. 캐럴을 마음대로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삭막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곡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너무 책임감 없이 즐기지만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잠긴다. 모두 함께 분위기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작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소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나는 전처럼 아쉽기만 하지는 않았다. 창작자의 노력과 마음을 지켜 주는 ‘저작권’이라는 따뜻한 약속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음악이나 그림 등을 사용할 때는 만든 사람의 노력과 권리를 먼저 생각해 보기로 했다. 거리에서 캐럴이 들리지 않는 조용한 크리스마스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간직한 소중한 크리스마스였기에 더 행복했다. 그래서 결국 크리스마스 캐럴은 듣지 못 했냐고? 그럴 리가! 집에 돌아온 동생과 나는 유료 음원 앱에서 좋아하는 캐럴을 몇 곡 다운 받았다. 그리고 캐럴을 따라 부르며 작지만 소중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낼 수 있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아름다운 캐럴에 대한 소중한 저작권이 잘 지켜지기를…. 창작자도 소비자도 모두 넉넉한 마음으로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를 소망한다.